

혁신 창업기업을 튼튼하게

경진원, 돈움기업 육성 참여기업 모집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다음달 8일까지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돈움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신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역량 있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단계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특정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작된 전라북도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인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중 첫 번째 지원 사업이다.

2020년에 시작한 이번 사업은 2020년(1기)에 20개사, 2021년(2기)에 20개사로 현재까지 총 40개사가 돈움기업으로 선정돼 기술개발(R&D) 지원, 현장 애로기술 해결, 제품 및 기술 사업화

를 위한 마케팅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2기로 선정돼 사업에 참여한 돈움기업들은 매출액 및 고용창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년도 매출액 대비 기업별 매출액 증가율이 평균 20.4% 전년도 대비 고용률은 18.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년 차 사업은 선정된 20개 내외의 돈움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R&D) 지원 부문 최대 5,500만원, 현장으로 기술해결 지원 부문 최대 3천만 원, 그리고 사업화 마케팅 지원 부문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진단을 통한 컨설팅과 ESG 경영 지원,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돈움기업들이 전라북도

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21년도 결산 기준 매출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도내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인력·부서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 절차는 경영역량, 혁신인증활동,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는 1차 서류심사와 기업환경, 기술·경영상태 등을 확인하는 2차 현장 심사를 거친다. CEO 인터뷰를 통한 경영진의 사업 이해도, 기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3차 발표심사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20개사를 선정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ta.or.kr) 2022년 전라북도 돈움기업 육성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희 기자

봄철 닭 생산성 유지하려면?

"최소 유지 환기량 조금씩 늘려줘야" 농진청, 환절기 사육 환경 관리법 제시

요가 많은 여름에 대비해, 육계 농가에서 병아리를 가장 많이 들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리해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환절기를 맞아 계사 안 환기 온도, 습도 관리법을 15일 제시했다.

우선 봄에는 겨울과 달리 최소로 유지하던 환기량을 조금씩 늘려줘야 한다. 바깥 기온이 비교적 따뜻한 낮에 환기량을 서서히 높여주고, 기온이 낮은 밤에는 최소 환기량을 유지한다. 환기량은 1만 마리 기준 3만 CFM(540m³/분) 수준에서 계사 내부 공기 교환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환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가



스와 각종 병원균에 의해 호흡기 질병, 폭시독증, 장염에 걸릴 수 있다. 또한 계사 온도가 낮으면 닭의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른 봄 갑작스런 추위에 대비해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날씨가 풀렸다고 갑자기 보온시설을 철거하면, 밤에 계사 온도가 낮아져 저온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계

사 안 밤낮 온도 차이는 10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특히 체온 유지 능력이 부족한 병아리는 7일령까지의 온도(30~34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온도가 낮아지면 몸집 현상에 의해 암사하는 개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건조한 날에는 내부 습도가 낮아져 병아리가 탈수나 호흡기 질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육계 병아리 7일령까지는 습도 70% 정도로 유지하며, 이후에는 물 마시는 양과 배설량이 늘어남으로 60% 정도로 관리한다. 계사 안이 건조할 때는 가습기 안개 분무 장치를 이용해 적정 습도로 조절한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시풍 가금연구소장은 "올해는 유난히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계사 안 환기 온도, 습도를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전북축협 운영협의회가 15일 스마트 축산 클린 축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스마트·클린축산으로 도내 축산업 발전 도모

전북농협 전북축협 클린축산 추진 결의대회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북축협운영협의회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축협 스마트축산·클린축산 추진 결의대회'를 15일 실시했다.

전북축협운영협의회(김시중 협의회장)는 도내 10개 축협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전북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축산'을 추진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악취 및 질병 등 기존 축산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클린축산' 운동을

중점 추진해, 디지털기술 도입과 축산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농축산물인 많이 선정되도록 농정활동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올해 범농협 핵심사업인 스마트농업 확산, ESG경영,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등 농업·농촌의 혁신과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기반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병원 건축 패러다임 제시 건립 효과 향상 의견 공유

내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세미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군산전북대학교병원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대병원, 군산시 및 신영대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17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세 시간 동안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되고,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세미나는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장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일 군산시의회의 부의장이 참석하며, 사업의 진행경과 및 계획을 소개하고 ▲국내 병원 건축 패러다임 변화(한양대학교 안내원 교수) ▲새병원 이야기(세종중남대병원 안명진 사무국장) ▲의료환경의 변화와 미래(삼정 KPMG 박경수 상무) ▲스마트헬스케어(필립스코리아 김효석 본부장) ▲군산 의료사와 상생의 길(백진현 전 전라북도사회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시간으로 일정이 구성됐다.

저탄소 식생활 확산 '맞손'

aT-한진, ESG 실천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공사) 시장 김춘진과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ESG 실천 ▲기후위기 인식개선과 탄소중립 생활실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 중 하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Net Zero(탄소중립)'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이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함에 따라, 공사는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80개 지자체·교육청·협회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부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저탄소 친환경 농산식품과 로컬푸드로 음식을 만들어 남기지 않고 먹는 문화로 기존 대비 이산화탄소를 50%까지 줄였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에너지 전문기관으로 태양과 바람 등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해 먹거리 분야 탄소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aT공사 김춘진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먹거리와 에너지 분야 탄소 절감 노력이 2050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 실천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ESG 실천 문화확산과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상반기 사업추진 화상회의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15일 농협전북본부 4층 중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경민 본부장을 비롯한 도내 34개 영업점 사무소장이 참석했으며, 코로나 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 주요 내용은 1/4분기 경영성과 분석과 함께 각 사업부문별 중점 추진 미션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방향 및 우수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2년 상반기 사업추진 비전을 전북경제 활성화와 유동성 공급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삼고 이를 위해 지자체 협약대출 및 기업사실자금, ESG 특화 금융상품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농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5일 농협 전북본부 4층 중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업금융컨설팅, 정책자금 등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장경민 본부장은 "코로나 19 확산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전북도민

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힘을 한데 모아 지역대표은행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15일 인웅덕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사무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 농관원 제공)

중기 최고경영자 과정 'KBIZ AMP' 16기 모집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과정인 'KBIZ AMP' 16기를 다음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KBIZ AMP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CEO의 경영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개설했다. 현재까지 15기에 걸쳐 약 900여명의 동문을 배출했으며, '청의적인 사람과 조직을 키우는 존경받는 리더'를 양성하는 중소기업 대표 최고경영자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합리적인 비용과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풍성한 콘텐츠, 중기중앙회 중심의 강한 소속감 고취, 활발한 동문회 활동 등으로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지역 농업인 안정적 소득 지원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 공급

농관원 장수사무소 준공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웅덕, 이하 농관원)은 전북지원 장수사무소 준공식이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웅덕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이 열린 장수사무소 신축 청사는 대지 3,035㎡, 연면적 508㎡의 2층 건물로 총 19억 원을 투입해 1층에는 농업경영체등록 사무실 민원실, 서고로 2층에는 수사실, 대회의실

등을 갖는다.

농관원은 공공비축미곡 매입검사, 친환경인증 및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사후관리,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농업경영체등록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수 사무소 청사 준공을 계기로 농업인에게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며,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다양한 업무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현장농정 역할 강화를 다짐했다. /최대희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김명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